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7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소비 및 물가상승이 주춤했으나 생산 및 고용은 양호

유로존 : ECB는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화정책 기조 유지

중　국 : 상반기 6.9% 성장 기록, 하반기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

일　본 : 글로벌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 다소 뚜렷

한　국 : 수출이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나, 고용·소득 등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

I B K 경 제 연 구 소
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소비 및 물가상승이 주춤했으나 생산 및 고용은 양호

○ 유가하락으로 소매판매(2.8%)가 주춤했고 소비자물가(1.6%)도 4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

- 반면 美원유생산 증가로 광업(9.9%) 등 산업생산(2.0%)이 증가했고, 6월 ISM제조업지수(57.8pt)는 '14.8월(57.9pt) 이후 최고치를 기록,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수(22.2만명)도 20만명을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감

※ ISM제조업지수(기준=50) : 56.0('17.1) → 57.7(2) → 57.2(3) → 54.8(4) → 54.9(5) → 57.8(6)

○ 옐런 연준의장은 하반기 청문회(반기통화정책보고서)에서 ①고용, 투자, 소비가 견인하는 완만한 경제성장 ②연내 연준자산 축소 개시 ③점진적 금리인상을 강조

- 최근의 물가부진 원인을 일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6월 FOMC 회의보다 신중한 모습 → 시장에서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현재 점도표 수준보다 완만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*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내 금리인상 확률 : 40.4%(블룸버그, 7.21일)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6	1.3	1.7	2.0	2.1

월지표	'16.6월	'17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3.2	5.6	4.7	4.8	4.5	4.1	2.8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0	2.5	2.8	2.4	2.2	1.9	1.6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8	0.0	0.4	1.3	1.8	1.9	2.0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29.7	21.6	23.2	5.0	20.7	15.2	22.2
실업률(%)	4.9	4.8	4.7	4.5	4.4	4.3	4.4

□ 유로존, ECB는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화정책 기조 유지

○ 7.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①정책금리* 동결 ②'17.12월까지 매월 600억유로 자산매입프로그램 유지 결정 * 기준금리 0.0%, 예금금리 △0.4%, 한계대출금리 0.25%

-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을에 통화정책 기조 변경(=테이퍼링)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 ※ '17년 향후 통화정책회의 일정 : 9.7일, 10.26일, 12.14일

○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세 지속

- 5월 산업생산은 내구재 및 자본재 생산 증가로 '11.8월 이후 최고치 기록

※ 경기체감지수(기준=100) : 108.0('17.2) → 108.0(3) → 109.7(4) → 109.2(5) → 111.1(6)

※ sentix 투자지수(기준=0) : 17.4('17.2) → 20.7(3) → 23.9(4) → 27.4(5) → 28.4(6)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6	1.8	1.8	1.9

월지표	'16.6월	'17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0.8	0.4	1.4	2.2	1.2	4.0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.9	1.6	1.9	2.8	2.6	2.6	
실업률(%)	10.1	9.6	9.4	9.4	9.3	9.3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.1	1.8	2.0	1.5	1.9	1.4	1.3

□ 중국, 상반기 6.9% 성장 기록, 하반기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

○ 상반기는 기업이익 증가로 제조업생산(7.4%)이 크게 증가했고, 견조한 소비증가로 서비스업생산(7.7%)도 성장세 지속

※ 부문별 성장기여도(전년동기대비, %p) : 소비 4.4, 투자 2.3, 수출 0.3

- 반면, 하반기는 부동산 규제강화에 이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아지며* 6.6~6.7%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(중국 통계국 산하 경제·경기모니터링 센터)

* 중국 심계서(감사원)이 조사대상의 90% 국유기업에서 재무부정을 적발하며 하반기 개혁이 강화될 전망

○ 7.3일 홍콩과 중국 본토간 은행간 채권시장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'채권퉁(債券通)' 시행

- 해외자본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의 '홍콩→중국본토' 방향의 거래만 허용하며 중국 투자자들의 역외채권 투자는 불허함
- 채권퉁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채권 매입이 확대되고 자본유입이 증가하면서 하반기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(안정화)하며 중앙은행의 환율개입 필요성이 축소될 전망

분기지표	'16.Q2	Q3	Q4	'17.Q1	Q2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7	6.8	6.9	6.9

월지표	'16.6월	'17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6.2	6.3		7.6	6.5	6.5	7.6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6	9.5		10.9	10.7	10.7	11.0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9.0	8.9		9.2	8.9	8.6	8.6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4.8	7.9	△1.3	16.4	8.0	8.7	11.3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년동월대비, %)	5.7	10.7	10.6	10.3	9.9	9.7	9.6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9	2.5	0.8	0.9	1.2	1.5	1.5

□ 일본, 글로벌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 다소 뚜렷

○ '16년 4월 쿠마모토 지진에 따른 생산중단의 기저효과로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.9%('15.1월 이후 최고치), 산업생산은 6.5%('14.3월 이후 최고치) 증가

- 자동차, 운송기계를 중심으로 對중국(23.9%) 및 對한국(22.9%) 수출이 크게 증가

○ 선거참패 등 아베 총리 지지율 급락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
- 자민당은 도쿄도의회선거에서 23석 확보(기존 57석)에 그친 가운데, 아베 지지율이 31.9%까지 급락, 30%를 하회할 경우 퇴진론까지 거론될 가능성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0.5	0.9	1.1	1.7	1.6

월지표	'16.5월	'16.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4	3.1	3.2	4.7	3.5	5.7	6.5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△2.1	0.7	1.0	0.2	2.1	3.2	2.1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1.3	5.4	1.3	11.3	12.0	7.5	14.9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5	0.3	0.5	0.2	0.2	0.4	0.4

□ 국내, 수출이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나, 고용·소득 등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

※ '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8%로 0.2%p 상향조정했고 추경집행시 3%도 가능(한국은행, 7.13일)

○ 6월 수출은 역대 2위 수출실적(514억달러)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3.6% 증가('17.1~6월 : 15.8%)

※ 지역별 : 중국(5.1%), 일본(10.4%), EU(21.0%), 미국(△1.1%), 중동(△6.4%)

※ 품목별 : 반도체(55.3%), 선박(44.3%), 석유제품(6.5%), 철강제품(3.5%)

- '17년 수출이 '11년 이후 처음으로 10% 내외로 증가하면서 교역액도 3년만에 1조달러 회복 전망(산업통상자원부, '17.7월)

○ 6월 고용률은 20년만에 최고치인 61.4%를 기록했지만, 청년실업률은 '00년 이후 동월 최고치인 10.5%로 확대

- 청년 체감실업률(구직단념자, 취업준비생 등 포함)도 23.4%를 기록해 4명中 1명은 백수인 상황

※ 청년실업률(%) : 9.7('16.5) ⇒ 12.3('17.2) → 11.3(3) → 11.2(4) → 9.3(5) → 10.5(6)

⇒ 가계부채 증가('17.Q1, 1,360조원)와 실질소득 감소('17.Q1, △1.2%)로 인해 평균소비성향('16.Q4, 69.7%)도 지속적으로 하락中

○ 최저임금위원회(7.15일)는 '18년 최저임금을 16.4%(17년만에 최대폭) 인상한 7,530원으로 결정

※ 최저임금(원) : 4,110('10) ⇒ 5,210('14) → 5,580('15) → 6,030('16) → 6,470('17) → 7,530('18)

-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하위 23.6%에 해당하는 463만명(주로 도소매업·음식숙박업 등에 종사, 68.2%)이 수혜 예상(최저임금위원회, 기획재정부, 7.16일)

-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(7.16일)

  • (3大 기본원칙)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, 고용감소 방지,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

- 인건비 직접지원(3조원 내외),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(1조원+α) 등에 초점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기대비, %)	0.5	0.9	0.5	0.5	1.1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9	3.4	2.6	2.4	2.9

월지표		'16.5월	6월	'17.2월	3월	4월	5월	6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4.6	1.0	6.9	3.5	1.8	0.0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4.0	1.8	7.2	1.6	△0.2	△1.3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0.4	△2.1	△6.0	△5.6	△1.0	1.0	
	평균가동률(%)	74.3	72.4	71.0	73.1	71.9	71.4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3.6	4.9	2.5	2.8	2.5	2.1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4.9	9.4	0.5	1.2	2.6	1.6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, %)	2.5	2.1	19.5	23.4	14.3	19.5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16.5	17.0	22.6	18.1	19.1	15.2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0.8	0.7	1.9	2.2	1.9	2.0	1.9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0.7	101.1	104.3	104.4	104.5	104.8	105.7
실업률(%)		3.7	3.6	5.0	4.2	4.2	3.6	3.8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6.1	△2.9	20.2	13.1	23.8	13.2	13.6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8.4	△7.4	24.0	27.7	17.3	19.1	19.8